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기법개발」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8월 2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부연구진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1핵심과제 중 2세부과제로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개발”을 주제로 하는 3차년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기법개발(1-2)”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가 주관하며, 세부과제로 “지방도시 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연구(1-2-1)”,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2-2)”,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통합 연계방안(1-2-3)” 등 충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협동기관이 되어 11개월간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방도시 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연구”는 지방도시재생의 개념 정립과 지방도시의 쇠퇴 상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방도시의 재생 방향과 전략 및 추진계획,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종합지침 및 매뉴얼 작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개발유형을 신기능·신시설형(전면철거형), 기존 기능·시설정비형(개량형), 기존 기능·시설 활

성화형(지역사회참여형)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이를 중심시가지, 산업쇠퇴지역, 도시전체쇠퇴 지역별로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 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 개발을 주 연구내용으로 한다.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및 재원통합 연계방안”은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연계와 통합 및 패키지화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케 하고 국가지원재정의 절약은 물론,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의 촉진을 연구 목적으로 하며, 지방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실태 및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전략 발굴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과 핵심기관 및 내부 연구진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목원대 김혜천 교수, 영동대 백기영 교수, 목원대 최정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진 박사가 외부 전문가로 참석하였다.

내부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는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에 앞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등을 심의 및 논의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